The LEET BIBLE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TLB

FINAL ROUND 2023

2023학년도 기출문제 철저분석 **추리논증**

Urban Culture Lab

The LEET BIBLE™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3 추리논증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초판 1쇄
개정일	2025년 6월 23일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쳐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 (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39,800원
ISBN	979-11-992339-0-4(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Final Round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음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셔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초판에서 발견된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해설 면에서도 몇 문제에서 발견되었던 오류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부분을 개선했고, 편집적인 측면에서도 오탈자 개정, 문장 재검토 및 나아가 교재 서식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 편집하였고 불필요하게 페이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최소화하여, 내실 있으면서 분량 면에서도 학습에 딱 맞는 컴팩트한 교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른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시작하기에 앞서

The LEET BIBLE Final Round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 Final Round 교재는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 교재로, 한 해의 전체 기출문제를 리트바이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방법들을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히 원리나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행해야 하는 실전적 대응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학습하고 제시문과 문제풀이를 다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아닌, 극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al Round 교재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Tip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1 FINAL 행동강령

FINAL 행동강령

앞서 The LEET BIBLE의 LEET Tips와 유사한 형태이나, Final Round에서 드리는 팁은 "행동강령", 즉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앞선 리트바이블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면, FINAL 행동강령에서 의미하시는 바가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2 LEET 실전전략 / 사전적, 사후적 분석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치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풀며 동시에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분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Final Round에서만 보실 수 있는 LEET 실전 전략 코너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논하고, 사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서의 총론 및 추가적인 코멘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이나 문제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SAMPLE SAMPLE SAMPLE

CONTENTS

CHAPTER 01 | Final Round 사용설명서 9

1. Final Round 집필 의도 11
2. 시험장에서의 실전 행동방식 13

CHAPTER 02 | 2023 추리논증 문제풀이 16

1. 1~5번 문제 18
2. 6~10번 문제 50
3. 11~15번 문제 74
4. 16~20번 문제 98
5. 21~25번 문제 123
6. 26~30번 문제 155
7. 31~40번 문제 (32~34 생략) 177

CHAPTER 03 | 2023 추리논증 문제풀이 (논리게임) 210

1. 32번 문제 212
2. 33번 문제 217
3. 34번 문제 222

정답지 225

SAMPLE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

드디어 Final Round.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제 1 장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Final Round의 집필 의도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3에는 2023학년도 최신 기출문제 중 언어이해 30문제와 추리논증 40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실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기존의 The LEET BIBLE의 모든 시리즈도 그러하였으나, 더욱이 이 책은 실전적 접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도출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LEET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보다, 지금의 로스쿨 입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높아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경향을 짚어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독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되,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독해 과정을 조절할 것을 Principle(상), (하)를 통하여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제풀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는 목차 설정과 중요 문장 표시에 주력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출 분석을 통해 빈출 선지로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를 토대로 독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 풀이 시에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 둔 행동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LEET 시험을 준비했고, 특히 언어이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과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경향을 꿰뚫어 보는 한편, 본 시험에서는 평소 세워 두었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는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LEET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학습 전략을 통해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소 험난해 보이는 LEET 정복의 여정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02

2023 추리논증 문제풀이



The LEET BIBLE™

“

2023학년도 추리논증은 추리논증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해 오셨던
리트바이블의 핵심 원리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추리논증 1번

제한시간 3분 30초

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A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다.

갑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이다.

을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 또는 성과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받는 자이다.

병 :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보 기>

ㄱ. 헬스장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헬스장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레슨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갑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병에 따르면 가입할 수 없다.

ㄴ. 원격영어학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지는 않으나 학원과 계약을 맺고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그 학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갑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을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다.

ㄷ.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한 자는 을에 따르든 병에 따르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1, 2번 문제의 경우, 논의의 평면적 변수와 차원의 구획에 주의하지 못해서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어이해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모드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문제풀이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차원의 구획이 일상어로 되어있을 때 놓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합니다.

X국의 A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다.

해당 문제는 근로자의 범위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 견해와 쟁점이 제시되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A의 B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table>
<tr><td>제2조 제1항</td><td colspan="2">'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td></tr>
<tr><td rowspan="2">제2조 제4항</td><td>주체</td><td>근로자가 아니면</td></tr>
<tr><td>효과</td><td>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td></tr>
</table>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변수와 변수가 아닌 것을 우선 구분하자면 직업의 종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 여부의 확정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이다.
을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①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 / 또는 ② 성과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받는 자이다.
병 :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갑, 을, 병,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는 이 견해들 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지점을 찾자면 갑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때 을에서 제시된 "성과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와 비교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 경우, 주체면에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단, 그 포

함 요건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선언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단순히 기준만 언급해 주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FINAL 행동강령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두기

추리논증의 강화·약화 내지 대응형 문제에서 단순히 기준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의 적용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그 요건이 추상적이라서, 실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 모르는 것을 임의로 선언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르는 것을 함부로 선언해서 틀리게 만드는 유형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꼭 사전에 연습해 두도록 한다.

ㄱ. **헬스장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 **헬스장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 개인 레슨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 갑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병에 따르면 **가입할 수 없다**.

갑: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대응: (헬스장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이다(대응: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

주체나 객체가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 사례들을 대응해 봅니다. 그런데, 헬스장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라 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회원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제자가 이를 의도한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선지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와의 형식적 비교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넘어가 봅니다.

병: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노조가입 대상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여야 하는데, 병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는 "~수수료,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는 자" 차원이지만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의 견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가장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중이지 않은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의 기준에 따르면 ㄱ 선지에 언급된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자가 병의 견해를 제시한 것은 이러한 취지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이 선지의 판단은 보류하고 다른 선지로 넘어갑니다.

> ㄴ. 원격영어학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지는 않으나** / 학원과 **계약을 맺고**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그 학원으로부터[ㄱ 선지와의 비교를 통한 확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갑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 **을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다**.

ㄴ 선지를 통해 보니 이제야 ㄱ 선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선지 간 비교를 해보면, ㄴ 선지에서는 계속적·정기적 금품 내지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원격영어학원"으로 수수료를 주는 주체와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ㄱ 선지는 수수료는 "회원"에게 받으나, 계약은 "헬스장 사업자"와 했기 때문에 계약의 대상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 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ㄱ 선지	계약 체결	사업자	**ㄴ 선지**	계약 체결	학원
	지급 주체	회원		지급 주체	학원
	다름			동일	

이를 갑에 대응할 때 노동자에 해당할 수 없음에 따라 ㄱ 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ㄱ 선지로 돌아가는 경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ㄱ 선지는 틀린 선지였습니다.

추리논증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현장 행동 중 하나는, **어떤 선지의 정오 판단이 어렵거나 잘 모르겠을 때 그 선지 안에서만 해당 문제의 풀이 방법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본 문제의 사례와 같이, 생각보다 선지 간 비교를 통해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선지의 판단 기준을 임의로 선언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출제유형을 잘 인지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사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FINAL 행동강령 **선지의 형식적 비교를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험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행동 요령 중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는 선지 그 자체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모를 때는 함부로 확정짓지 말고 일단 넘어간 뒤, 다른 선지 간 형식적 구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은 주체 또는 객체의 차이, 시간의 차이 등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면 출제자도 굳이 다른 변수나 차이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문제의 요구사항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LEET 전반에서 중요한 접근방식이니 꼭 기억해 둔다.

ㄴ. 원격영어학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지는 않으나** / 학원과 **계약을 맺고**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그 학원으로부터**[ㄱ 선지와의 비교를 통한 확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갑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 **을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시 ㄴ 선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ㄴ 선지는 지급 주체 면에서 사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급 주체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계속적· 정기적 금품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ㄴ 선지의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따져 보려고 하니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가 지급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질 때 항상 A 차원, ~A 차원의 구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정기적 차원	~계속적·정기적 차원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일단 선지에서도 "원격영어학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지는 않으나"와 같이 계속적·정기적인 금품을 받지 않는다고도 쓰여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방식을 다른 문제에서도 그대로 활용해 보시게끔 주의를 환기하고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갑에 따르면 일단 ㄴ 선지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을에 따르면 성과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은 맞는 선지입니다.

ㄷ.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한 자는** / 을에 따르든 / 병에 따르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당 선지는 추리논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선지 구성 방식 선지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고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독해를 하면서 파악했듯이, 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 금품을 받는 자" 또는 "성과에 따른 수수료(인센티브)를 받는 자"인데, 현재 주어진 정보를 주체 차원에 대응해 보면,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근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병: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 A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병입니다. 병의 경우, 근로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인가요, 없는 경우인가요?

모릅니다.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영역으로 차원을 구획하려고 해도 구획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선언해 놨습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도 하나로 선언해 놓은 유형으로서, LEET에서 빈출하는 오답 구성 방식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FINAL 행동강령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선언하기 유형

위 사례처럼 추리논증의 경우 기준만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의 적용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형적인 오답 구성 방식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함부로 선언하는 유형이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오답 유형이므로 꼭 기억해두자.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풂과 동시에 반드시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5~6분을 소비해 버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 반드시 그 이유와 그 대처방법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